“글로벌 이벤트 특수 잡자” 달아오른 ‘대형 TV’ 전쟁

내달 러시아월드컵 앞두고 대형 모델 늘리면서 가격은 20~30% 낮춰

다음 달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글로벌 이벤트 특수를 노리는 TV 업계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 TV 판매 1, 2위를 수성 중인 삼성과 LG는 대형 TV를 주력으로 모델은 늘리고 가격은 낮추며 총공세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인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를 앞세워 65인치 이상 대형 TV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올해 QLED TV는 전년 대비 두 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형 QLED TV 제품군은 55형(인치)에서 82형까지 4개 시리즈(Q6F·Q7F·Q8C·Q9F) 11개 모델로 다양화했다.

특히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제품군을 작년에 비해 2배로 늘릴 계획이다. 82인치 QLED TV 신제품은 월드컵 개막에 맞춰 6월에 한국·미국 등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여기에 스포츠 경기에 최적화한 화질을 위해 인공지능(AI) 화질 개선 소프트웨어와 반도체를 탑재했다. 큰 화면에 맞춰 콘텐트까지 4K급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인공지능 4K Q 엔진’이다.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서 55~77인치 신제품 10종을 출시한다.

LG OLED TV는 응답속도가 LCD(액정표시장치) 대비 100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역동적인 스포츠 화면도 잔상 없이 자연스러운 영상을 보여준다고 자신한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올해 신제품 주요모델에는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화질엔진 ‘알파9’도 장착했다.

중남미 축구팬들을 겨냥해 특화 기능도 넣었다.

경기를 시청하면서 실시간으로 경기정보, 출전선수 정보, 팀 전적 등을 TV화면으로 볼수 있는 ‘풋볼 앱’과 경기장의 현장감을 위해 화질과 사운드를 특화한 ‘풋볼 모드’를 중남미 17개국에 먼저 서비스한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카카를 TV 광고 모델로 선정하며 스타 마케팅도 한창이다.

가격 할인 경쟁도 치열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신상품 출시 가격을 이례적으로 20~30% 인하했다.

삼성전자가 이달 내놓은 QLED TV의 커브드 시리즈인 Q8 55형(인치)은 지난해 485만원에서 올해 349만원으로 28% 낮췄다. 대표 시리즈인 Q7 55형은 지난해 414만원에서 올해 319만원으로 22.9% 내렸다.

LG전자 올레드 TV C8 65형은 7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8%, B8 65형은은 74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30% 할인했다. 55형은 300만원대 초반으로 20%가량 낮아졌다.프리미엄 모델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W8W 77형은 33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7.3% 낮췄다.

TV 업체 관계자는 “올해 6월 월드컵과 8월 아시안게임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몰려 있어 기업들이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성장하고 있는 대형 TV의 진입장벽을 낮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험연구원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 다수”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 고령화리뷰 ‘직장인 건강증진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직장인이 직무 중 스트레스를 대부분 혹은 항상 느끼는 근로자 비율이 남성 26.5%, 여성 25.4%로 집계됐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도 질병을 야기한 것으로 봤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일반 성인남성보다 좋지 않았다. 남성근로자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 등이 성인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율에서는 남성 근로자와 성인남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음주율 격차가 2015년부터 벌어지고 있다. 산재보험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중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이 포함된 작업 관련성질환이 약 77%로 집계됐다.

이에 산업보건 패러다임이 ‘직업병 예방’이 아닌 ‘근로자 건강증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각 산업 사업장은 광물이나 건설,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서비스업종이 증가하고 산업형태가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무직과 서비스업, 감정노동 증가로 촉발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외신, LG G7 싱큐 “사랑에 빠졌다” 호평

포브스·폰아레나·엔가젯 등 극찬 “괴물 카메라” “강렬 햇빛에도 선명”

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LG G7 싱큐가 해외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3일 LG에 따르면 ‘포브스’, ‘폰아레나’, ‘엔가젯’, ‘디지털트렌드’, ‘안드로이드헤드라인’ 등은 싱큐의 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능에 주목했다.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카메라에 대해 “전작 대비 화소, 조리개 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며, 광각의 왜곡까지 줄였다”며 “전·후면 카메라로 아웃포커싱 기능까지 갖춘 괴물 같은 카메라폰”이라고 극찬했다. ‘엔가젯’ 또한 “초광각 카메라는 그랜드 캐넌의 웅장함까지 담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트렌드’는 “색상, 디테일, 온도 면에서 화질이 뛰어났던 전작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우수한 디스플레이에 주목했다. 미국의 유력매체 ‘포브스’는 “최대 1000니트라는 깜짝 놀랄만한 밝기로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트렌드’는 테이블, 상자 등 속이 비어 있는 곳에 올려 놓기만 하면 강력한 저음을 구현하는 붐박스 스피커에 대해서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붐박스 스피커에 감사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제되고 깔끔한 멋이 돋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엔가젯’은 “제품을 감싸고 있는 메탈 프레임은 부드러운 곡면으로 설계돼 편안한 느낌을 준다”며 라즈베리 로즈 색상 싱큐에 대해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극찬했다.

‘폰아레나’는 “지난 해 G6의 디자인이 메탈과 유리로 구성된 현대적 디자인이었다면, LG G7 씽큐는 모든 면에서 정제된 디자인을 뽐낸다”고 평가했다.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 이달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 중 하나로 씽큐를 꼽으며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LG G7 싱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LG전자는 18일 국내에서 가장 먼저 LG G7 씽큐를 출시한다. 역대 최다 규모로 체험 부스 ‘씽큐 스퀘어’를 운영하고 전국 3000여 판매점에도 체험 공간을 마련해 보다 쉽게 고객들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한다.

기존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제품이라면 최고 수준의 ‘LG 고객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구매 후 1년 동안 액정이 파손될 경우 한 차례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또 LG 베스트샵 멤버십 5만 포인트를 주는 예약 판매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하정욱 LG전자 단말사업부장(전무)은 “LG G7 씽큐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과 차별화된 AI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라진 국민 생선 ‘명태’…다시 돌아오나?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12년 만에 동해안에 돌아왔다.

최근 동해안에서 명태가 잇따라 잡혔다. 이 중 일부는 인공 방류한 명태가 아닌 자연산 명태로 확인되면서 명태 자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생선’로 불리던 명태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외국산 명태 대신 국산 명태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환동해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앞바다 정치망 어장에서 200여 마리의 명태가 잡혔다.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췄던 명태가 200여 마리 넘게 잡힌 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어민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명태의 몸길이는 20~25㎝. 만 1년생으로 추정된다. 이 중 30여 마리는 유전자 검사한 결과 인공 방류한 명태가 아닌 자연산으로 확인됐다.

명태는 찬물에서 사는 한류성 어종으로 과거에는 강원 동해안에서 대량으로 잡혔다. 1940년대 26만톤 넘게 잡히면서 한동안 국민 식탁을 책임졌다.

하지만 1970년대 어린 명태 어획이 허용되면서 어획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사실상 씨가 마른 것이다. 또 기후변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서 명태는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지난 4년 간 추진한 인공 수정과 방류 작업으로 국산 명태 복원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명태 자원 회복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나눔 Lotto 제 806회차 당첨결과 (2018년 5월 12일 추첨)

14 20 23 31 37 38 + 27

순위	당첨게임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640,760,87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7	54,050,662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일치
3등	1,850	1,665,34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1,180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61,838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